

고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호평'

전국 첫 청년 상향지원 사업 등 영농현황·규모·제품판로 등 수집 컨설팅·정보화교육 등 맞춤 지원

고창군이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과 기존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 경로와 연차별 지원정책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모두 460여명에 달한다.

앞서 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 지원 카드'를 작성해 관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현황, 영농규모, 제품판로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신규 청년농업인과 대를 이어 영농을 이어가는 청년(승계농)들에 대한 현황 등을 작성해 관리·육성해 온 결과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은 지난해 300여명에서 올해 460여명까지 늘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청년농업인 상향지원 사업'은 총출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 끝난 청년농에게 군 자체사업으로 2년간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지난해 9월 열렸던 고창군 청년창업농 공감토크콘서트에서 심덕섭 군수가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사업이다. 사업은 영농초기 토지, 시설, 장비 등 정착을 위해 많은 부담을 안고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을 규모화된 농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창군만의 특별한 정책이다.

이 외에도 청년농의 원활한 농업경영 진입을 돕기 위한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정보화교육, 동아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창업 활성화 사업지원, 기업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드론자격증반을 운영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농업인들로 꾸린 '드론방재단'은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와 청년들의 농외소득에까지 도움이 돼 1석2조의 효과까지 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맞춤형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편의·안전시설 '이상무'

고창군, 8월18일까지 점검

고창군이 관내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샤워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고창군은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이 10일부터 8월18일까지 운영된다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김철태 부군수가 나서 시설상태와 개장 준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수욕장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부안해양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등과도 공동중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근무인력을 요소에 배치

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로 아름다운 서해안 노을을 조망할 수 있어 일몰의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쾌적한 관광을 즐기기에 좋다.

동호 해수욕장은 해안을 따라 우거진 명품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인근에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이 위치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는 한층 더 여유로운 관광지이다.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올 여름 폭염이 예고된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며 좋은 추억까지 만들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전북자치도 임도사업 평가 '최우수'

친환경적 비탈면 복구 등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임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읍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4년 임도사업평가(2023년 신설임도)'에서 정읍시가 간선임도 부문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에 뽑혔다.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전북자치도 및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나서 ▲노선 선정의 적절성 ▲경관저해 방지 ▲재해에 안전하고 산림사업에 활용도가 높은 임도 ▲사면 및 노면의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

정읍시의 평가 대상이었던 칠보면 수처리 간선임도는 총 4km 중 2.7km가 시공 완료된 지역으로 비탈면 녹화공법, 안정적인 종단경사와 노면 상태 등의 시공이 매우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용출수 발생 구간에 담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 내 토양을 치환하며 나온 점토질 토양을 사면에 풀씨와 혼합시공함으로써 접착력과 받아들여 높여 훼손된 비탈면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 것은 대표적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는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내년도 임도사업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칠보면 수처리 간선임도 전역 구간 1.3km를 올해 안에 완공해 칠보산 정상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산불발생 시 신속한 기계장비 진화를 위해 충분한 노면폭을 확보한 임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나 산림경영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기능으로서 임도를 활용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다가임도를 더욱 늘리는 등 임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보건행정 우수성 입증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펼쳤던 남원시가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결과와 우수사례에 대한 시·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고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행정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과 만성질환 취약계층의 건강관

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의 건강 수준을 다양한 자료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내·외부 자원과 연계·협력해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비만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리 오나라- 건강! 저리 가거라- 비만!'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보건소 간 노하우를 공유·소통하기도 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내년까지 전수조사 등 실시

정읍시가 오는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변경 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지 또는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 이후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농지법 시행 전인 1972년 12월31일까지 주택, 창고 등이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했다.

따라서 시는 해당 날짜 이전에 촬영된 과거 흑백 항공사진이나 각종 행정자료 6000여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 이중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계속해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지목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축산농장 폭염 대응 추진...남원시, 614개소 10억원 지원

남원시가 폭염대응 시설장비와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역 축산농장 614개소에 10억원 지원해 고온기 정상적인 가축사육과 피해방지를 도모한다.

남원시는 품목별로 급수장비 246대(관정 4공)와 환기장치 759대, 열차단커튼 60동, 열감지기, 전기보강 21대, 스트레스완화영양제 200t 등 폭염 취약 가축인 닭, 오리, 돼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소의 경우 사료섭취 저하와 증체가 저하되지 않도록

록 공기순환과 미네랄제 보강급여가 되도록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남원시는 폭염기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재해대응 상황실을 가축방역대응반과 같이 운영하며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위해 축종별 농가 협회, 조합이 참여하는 카톡방을 개설 운영한다.

또 폭염, 재해 등으로 농장과 가축 피해 발생 시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7억원 지원

한다. 농가는 15%만 부담 가입되도록 하고 각종 피해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안정된 경영을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폭염 기간 가축 피해가 없도록 농장에서는 충분한 환기와 급수, 영양제 급여 등 세밀히 가축을 관리해 피해 없는 여름 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항착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